



기회마다 시원한 한방...KIA 포수 이흥구

‘믿음’에 ‘응답’하다



4월 한화전 대타 만루포·넥센전 11연패 탈출에도 공헌
타율 0.326 투수리드 안정세...김기태 “대타로도 훌륭”

작은 변화가 만든 이흥구의 큰 변화다.
KIA 포수 이흥구에게는 ‘관목상대(刮目相對)’라는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2015시즌이다. 차일목의 부상 속 처음으로 개막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던 이흥구는 35 경기를 치른 현재 안방싸움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차일목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이흥구의 2군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김기태 감독은 세 명의 포수를 엔트리에 두는 방법을 선택했었다. “대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감독의 설명이었다. 설마 하던 시선은 이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흥구는 김 감독의 믿음과 기대대로 타석에서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며 숨겨두었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올 시즌 마수결이 홀린은 짜릿한 만루포였다. 4월29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6회 1사 만루에 대타로 나온 이흥구는 지금은 동료가 된 유창식을 상대로 자신의 통산 세 번째 홈런이자 두 번째 만루포를 쏘아올렸다. 넥센전 11연패

탈출에도 이흥구의 시원한 한방이 있었다.
이흥구는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11일 현재 43타수 14안타 (0.326), 12타점을 만들었다. 포수로서의 입지도 넓혀가고 있다. 막내 포수로서 좌중우돌 주눅 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지난해와 다른 성적, 표정부터가 달랐다.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이흥구는 “열심히 후회 없이 하면 된다”며 밝은 표정이었다. 시범경기를 치르고 시즌을 보내면서도 한결같았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다.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작은 부분이 큰 변화를 만들었다. 코칭스태프의 충고를 있는 그대로 흡수하면서 힘있는 타자가 된 것이다.
이흥구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체를 낮춰 치고 있다. 홍세완 코치님이 중심이 위에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심을 낮춰 치면서 잘 맞기 시작했다. 감독님께서는 가볍게 오른손을 쥐라더라 하라고 하였고, 수석코치님은 타석에 나갈 때 공을 쫓게라고 하신다. 박

흥식 코치님은 원발의 리듬을 말씀해주시는데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격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시작됐다. 바로 경기에 나서는 마음가짐이다.
이흥구는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한 타석 한 타석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자신있게 하려고 한다. 아직도 수싸움이 부족하지만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서 조금 더 유리하게 타격을 끌고 가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타자로 재능을 보여준 이흥구는 이제 포수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줘야 한다. 나카무라 배터리 코치는 ‘자신감’을 말한다.
나카무라 코치는 “시합에서는 아직 불안하지만 연습을 하면서 공을 던지는 자세와 컨트롤이 많이 좋아졌다. 경기를 하면서 도루를 몇 번 저지하고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나와 얼굴과 체형이 비슷한 제자인데 착한 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더 강해지면 좋겠다”며 “처음 마무리 캠프에서 만났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도 없고 소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밝은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도 한다. 힘도 있고 하니까 자신있게 하면 실력이 많이 늘 것이다”며 포수 이흥구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태 “박찬호 스리번트 지시는 경각심 위해”

덕아웃 특·독

▲“놀라서 쳤어요.” = KIA는 지난 12일 kt와의 경기에서 2-2로 맞선 7회 2사 1루에서 터진 김원섭의 좌전안타로 3-2 역전승을 거뒀다. kt 에이스 옥스프링을 상대로 결승타의 주인공이 된 김원섭의 소감은 “놀라서 쳤어요”였다. 김원섭은 “너클볼이 들어와서 놀랐다. 주자 없을 때 종종 던지는 것은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공이 들어왔다. 삼진 막지 말고 치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안타가 됐다”고 언급했다.
▲“경각심, 책임감을 주려는 것이었다.” = 스리번트를 감행한 것에 대한 김기태 감독의 설명은 ‘경각심

과 책임감’이었다. 12일 2-2 동점이었던 7회말 1사 1루에서 김 감독은 타자 박찬호에게 번트사인을 냈다. 그러나 파울 이후 스트라이크를 지켜보면서 투 스트라이크. 김 감독은 스리번트 사인을 냈지만 파울이 나오면서 아웃이 됐다. 이에 대해 “사실 스리번트까지 가면 안 된다. 스리번트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선수에게 냉혹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투스라이크 전에 번트를 해야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책임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가장 (주자를 진루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스리번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뒤 김 감독은 주자 김호령에게 도루를 지시했다. 결과는 도루 성공

뒤 김원섭의 적시타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힘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 13일 취재진의 눈길을 끄는 이색 훈련이 있었다. 덕아웃에서 무언가를 찾던 김기태 감독이 철제로 된 발판을 들고 그라운드로 향했다. 그리고 강한울에게로 건네진 철제 발판. 강한울은 한동안 무거운 발판을 양팔로 받친 채 좌우로 중심이동을 하는 훈련을 해야 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선수들에게는 이미 경험해본 훈련. 이흥구가 “힘을 키우는 훈련이다”며 취재진의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김기태 감독은 “아마 10년 뒤에는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말할 것이다”고 웃으며 강한울을 지켜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러브투게더 데이’



KIA 타이거즈가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러브투게더 데이를 실시했다. 허영택 단장과 기자동차 광주지원실장 염원웅 이사, 문성윤 전남 아동복지협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지난 시즌 적립한 4억4988만원의 적립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남아동복지협회에 전달했다.

양현종 3·4월 월간 MVP



KIA 양현종이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병원이 시상하는 3·4월 월간 MVP에 선정돼 13일 시상식을 가졌다. 양현종은 3·4월 6경기에 선발 등판해 3승 2패 평균자책점 2.31의 성적을 기록했다. 시상금은 밝은안과21병원 주종대 원장이 했고, 양현종은 시상금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추 ‘打·打·打’

캔자스전 1번 출전 1회 선두타자 홈런 등 3안타...팀 패로 빛바래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4번째 홈런을 터뜨리고 올해 처음으로 한 경기 3안타를 쳤다.
추신수는 12일(현지시간) 미국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0-0이던 1회 말 기선을 제압하는 선두 타자 홈런을 터뜨렸다.
상대 우완 선발 투수 에딘손 볼케스의 초구 볼을 잘 고른 추신수는 2구째 높은 직구가 들어오자 번개처럼 방망이를 휘둘러 우측 펜스를 직선타성으로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홈런의 비거리는 108m로 측정됐다. 추신수의 시

즌 타점은 14개로 늘었다. 개인 통산 15번째 1회 선두타자 홈런을 친 추신수는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12’로 늘렸다. 12경기 연속 안타는 올해 아메리칸리그(AL)에서 가장 긴 안타 행진이다.
추신수의 홈런은 지난 6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좌월 투런 아치를 그린 이래 연세 만에 나왔다.
추신수는 4-5로 뒤진 7회 4번째 타석에서 바뀐 투수 루크 호체바의 커브를 퍼올려 우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를 날렸다. 상대 2루수 오마르 인판테가 경중 뛰어 잡아보려 했지만, 미치지 못했다. 추신수는 5-6으

로 끌려가던 9회 선두 타자로 나와 상대 마무리 투수 그레그 홀랜드의 몸쪽 높은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익수 앞으로 가는 안타로 출루하고 나서 대주자 제이크 스몰린스키로 교체됐다.
추신수의 안타로 극적인 동점 기회를 잡은 텍사스는 계속된 2사 2루에서 터진 주포 애드리안 벨트레의 중전 적시타에 힘입어 6-6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텍사스가 공수 교대 후 곧바로 알렉스 고든에게 우월 솔로포를 얻어맞아 6-7로 아깝게 무릎을 꿇은 바람에 추신수의 맹타는 빛을 바랬다.

/연합뉴스